

투데이 칼럼

감동을 얻는 삶

사 진이 작가적 수준에 이르게 되면 생기는 것이 '심미안'이다. 보통 사람에게서 잘 보이지 않는 미적, 작품적 안목이 느껴지는 것이다. 이런 것은 사전적 심미안이지만 문화예술의 다른 분야도 그 나름의 감각이 생겨난다. 또 어느 학문이나 직업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심미안적 감정과 시각은 DNA적 영향도 있다. 가령 사랑하는 연인사이의 느낌은 남자보다 여자쪽이 강한데 이는 보통 여성의 감성이 남성보다 높기 때문이다. 감성이 높은 것은 삶에서 느끼는 감정도 비례한다. 이상성적의 대표적 사례로 꼽는 소시오패스, 냉혈한으로도 불리는 그들은 세상의 수많은 감동적 사례에 대하여 비교적 무덤덤



홍 민 기
수필가

하다. 감동을 얻는 삶이란, 일상 속에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삶을 의미한다. 사진에 빠져들며 생기는 심미안처럼 감동도 느끼려는 관심과 노력이 만들거나 더 키우게 한다. 감동은 느끼려는 것보다 주려는 노력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주변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노

력, 즉 마음에서 비롯되는 도움과 봉사의 노력이 스스로를 감동적 인간으로 만든다. 그런 노력은 의외의 시너지 효과를 만든다. 가장 큰 몫은 스스로의 변화이다. 선한 사람, 모범적 언행, 존경받는 사람으로 되어가는 일이다. 감동적 삶의 길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97년 처음 미국을 방문했을

때 길거리 차량의 'four way stop'이나 '출입문 잡아주기' 같은 것에서부터 감동이 느껴졌다. 우리나라도 많이 개선되었지만 이미 30년 전 일이다. 이런 작지만 감동적 습관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존중과 배려의 마음씀이다. 존중받고자 하는 생각은 먼저 존중하려는 것에서 시작한다. '대접을 받으려거든 먼저 대접하라(마10장)'와 같은 말이다. 사람의 이기적 생각은 보편이지만 작은 것이라도 배푸는 생각이 있을 때 양심과 존경의 묶이 된다. 감동받는, 감동을 얻는 삶은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스스로의 삶을 아름답게 한다. 그곳에는 준법과 도의, 존중과 배려, 진실과 평화, 성실과 노력 같은 가치가 늘 함께한다.

독자제언

한 잔의 냉수가 전하는 따뜻함

오전 9시가 조금 넘는 시각, 파출소 문이 열리며 한 젊은 남성이 들어왔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의 표정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할머니 한 분이 교차로에서 손을 들어 지나가는 차를 세우려고 하시더라고요. 차매가 있으신 것 같아 위험해 보여서 모시고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다. 젊은이는 곧장 파출소 정수기 앞으로 가더니 냉수 한 컵을 받았다. 아직 차에서 기다리고 계신 할머니를 위해서였다. 처음 보는 어르신이고, 자신의 소중한 출근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그의 마음은 오직 할머니의 안위에 집중되어 있었다. 90세가 넘으신 할머니는 귀가 많이 어두우셨지만 정신은 맑으셨다.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며 사정을 알아보니, 기르시는 고추밭에 뿌릴 농약을 사러 버스를 타고 오시던 중 잘못 내리신 것이었다. 답고 힘든 날씨에 낯선 곳에서 당황하신 할머니에게, 그 젊은이는 그야말로 구원의 손길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의 사연을 들은 우리는 먼저 농약상에 들려 할머니가 필요로 하시던 농약을 구입한 뒤, 할머니를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다. 젊은이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을 때 그의 대답

이 더욱 인상 깊었다. "할머니 집을 찾아서 다행이에요."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담담하게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품격을 느꼈다. 대수롭지 않다는 듯한 그의 태도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을 주었다. 요즘 각박한 세상이라고들 한다. 남의 일에 관심 갖기를 꺼려하고, 번거로운 일은 피하려 한다고도 한다. 하지만 이 젊은이는 달랐다. 위험에 처한 어르신들 그냥 지나칠 수 없었고,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으로 임했던 것이다. 한 잔의 냉수, 그 작은 배려가 할머니의 갈증을 달래주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인 나에게서는 세상에 대한 희망을 선물해주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다. 이런 젊은이들이 있는 한, 우리 사회는 따뜻한 온기를 잃지 않을 것이다. 작은 관심 하나가 만드는 세상의 변화, 그 소중한 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하루였다. 오늘날도 누군가는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을 것이다. 그 작은 선행들이 모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있음을 믿는다. 이주연 고창경찰서 해리파출소 경사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헤어조크 감독, 베네치아 영화제 '평생 공로상' 수상



독일 영화감독 베르너 헤어조크(82)가 27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제82회 베네치아 국제영화제 개막식 및 영화 '라 그리치아' 시사회에서 평생공로상을 받은 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 헤어조크 감독은 19세에 첫 영화를 만들어 극영화 20편, 다큐멘터리 34편 등 70여 편의 장편 영화를 발표했다. 대표작으로 '이끼레, 신의 분노'(1972), '노스페리투: 뱀파이어'(1979), '피츠카랄도'(1982), '그리즐리 맨'(2005) 등이 있다.

사 설

연금저축 가입 7백만명

지난해 국내 연금저축 가입자가 764만명을 넘어섰다. 경제활동 인구 4명 중 1명은 연금저축에 가입한 셈이다. 지난해 연간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상품인 연금저축펀드로 약 7%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전체 연금저축의 연간 수익률은 물가상승률을 소폭 웃도는 3.7% 수준에 그쳤다. 금융 당국은 윤택한 노후생활을 위해 세제 혜택과 낮은 수수료 등의 장점을 활용해 연금저축의 적극적인 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연금저축은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노후를 대비하는 3층 연금제도의 한 축이다.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해 세금 혜택을 받고 노후 자산을 모으는 사적 연금이다.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한 국민연금과 달리 연금저축은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과 함께 연금 공백기를 메우는 역할을 한다. 상품별로는 보험이 115조5000억원(비중 64.7%)으로 가장 많았고, 펀드 40조4000억원(22.6%), 신탁 14조7000억원(8.2%), 공제 8조원(4.5%) 순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연금저축 가입자는 764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다. 연금저축 가입자들은 소득이 높을수록 가입률도 높았다. 연 근로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가입률은 1.5% 불과했지만, 1억원 초과는 50.7%의 가입률을 보였다. 연금저축 계약당 평균 연금수령액은 연 235만원으로 전년(연 297만원)보다 2만원 줄었다. 연금저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찍 시작하고, 많이 저축하고, 오랫동안 나눠 받는 게 중요하다.

세기봉 원년 멤버 전국 순회공연

한국 포크의 전설 '세기봉'의 원년 멤버 5인이 57년 만에 한 무대에 선다. 1960년대 서울 무교동의 음악 감상실이자 라이브 공연장이었던 '세기봉'은 걸출한 포크 가수들을 배출한 상징적인 장소다. 송창식, 윤형주, 김세환, 조영남, 이장희 등이 거쳐 간 '청년 음악의 산실'로 불렸다. 이들은 9월 6일 성남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공연 '세기봉, 더 라스트 콘서트(The Last Concert)'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는 '세기봉' 이름으로 진행하는 마지막 전국투어가 될 예정이다. '트윈폴리오'로 활동했던 윤형주와 송창식, 김세환 등 당시 세시봉 주역들이 참여한다. 세시봉에서 '대학생의 밤' 등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이상벽도 투어에 함께 한다. 젊은 가수와의 협업은 물론 이들의 우정을 조명하는 코너 등도 준비된다. 2015년엔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세기봉'이 개봉되기도 했다. 한 시대를 살아낸 모두의 청춘을 위로하고 기록하는 축제가 될 예정이다. 단순한 공연을 넘어 한국 대중음악사에 남을 기념비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콘서트'는 성남 아트센터 오케라하우스에서 출발해 10월11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공연을 연다. 이후 부산, 인천, 수원, 고양, 대구, 대전 등을 순회할 예정이다. 세월이 흘러도 그들의 노래는 여전히 팬들의 가슴에 스며들었다. 일세를 풍미한 포크 음악의 전설들이 곧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오프닝과 피날레 곡의 구성 등 관객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스페셜 무대가 마련된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

